

# 묘엄 스님 구도역정... 제자가 쓴 英 논문



**한계를 넘어서**  
정인명 지음  
이항순 옮김  
동국대출판부 펴냄  
1만5천원

최근에 한미선원장 대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던 몇 분의 큰스님이 임적했다. 그중에서도 법정 스님, 지관 스님과 함께 비구니계의 큰 어른 묘엄(妙嚴) 스님이 주목 받았다. 스님은 뛰어난 율사(律師)이며 대강백(大講伯)으로 한국의 비구니 승단을 재건하는 데 앞장 선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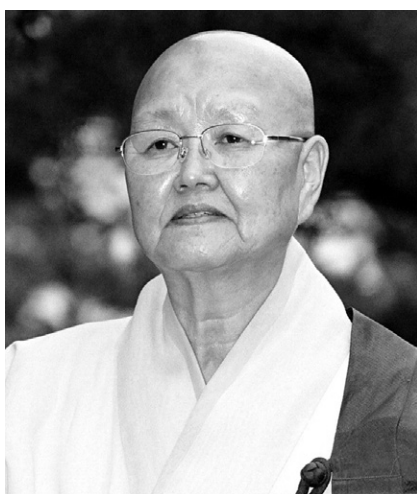
현재 한국 비구니 승단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교단의 인적 구성이나 역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역사자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솔직히 소외된 존재였다.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한국불교사에 빈자리로 남아 있다. 그 결과 한국불교사 해석은 주로 남성 출가자인 '비구'를 대상으로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편향적으로 조명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인 '비구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국 버지니아대 종교학과에서 저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이 책은 묘엄 스님(오른쪽 사진)의 일대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 비구니 승단의 재건과 정체

성 확립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명 스님 행장기 특유의 미사여구를 피하고 문헌과 현장 연구를 병행한 응용불교학의 방법론으로 한국 비구니 연구에 있어서 새 지평을 제시한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비구니로 살아온 한 개인이 내린 선택과 결정이 어떤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저자는 역사의 정역이나 관찰자 증인 또는 회고와 같은 구술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구술사 연구법을 도입해 생생한 다큐멘터리를 제공한다.

먹물 옷 입고 출가자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며 돌리산 가족과 승가공동체와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 나아가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가난하고 혼돈스런 시기에 한국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강력한 교육체제를 수립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을 재정비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비구니의 삶이 색채 잃은 신화나 전설로 증류돼 버리기 전 생명력 넘치는 사바세계의 역사로 기록된 감동적 서사를 선사한다.

묘엄 스님의 임적이 특히 세간의 눈길을 끈 데에는 조계종 2대 종정 청담 대종사의 친필이며,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라는 사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여성의 출가' 한 개인의 범상치 않은 가족사를 내포한 극단적 선택의 메타포로 일회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묘엄 스님, 뛰어난 율사요 대강백 연기적 서사 구성 방식으로 조명 비구니 승단 정체성 확립이 주제 열린 자세로 불성론을 체화 시켜**

이 책의 논지는 "묘엄의 출생을 곧 청담의 과거의 결과로 인식하는 태도"라는 '특별한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펼쳐진다. 묘엄 스님의 제자인 저자 석담 스님(속명 정인명)은 비구니 승가의 일원이면서도 연구자로서의 객관적 성찰과 냉정한 관점을 놓람도록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승단 내부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비구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나 부인 혹은 자녀들에 관해 조명"하거나, "한국의

불교계가 성문제와 관련된 과거에 대해 비구나 비구니에게 보여주는 차별적 태도"를 논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의 영향을 받아 사미니가 비구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묘엄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성철, 자운, 운허 스님 등 당대의 비구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 저자는 이러한 특권의 향유가 특별한 한 개인에게 베풀어진 혜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 비구 선사들은 입제선 전통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론(佛性論)을 체화한 이들도다. 그래서 그들은 묘엄 스님을 비롯한 소수의 비구니 제자들에게도 성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열린 자세로 비구와 동등하게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저자가 연기적 서사로서 재구성한 묘엄 스님의 삶에는 개인과 공동체, 여성과 남성, 보편과 특수, 씨름과 낚음이 겹겹으로 엮여 있다. 승단 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하고 비구니 승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스님은 온생을 관통하는 수행자의 치열함으로 여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승가공동체에서 묘엄 스님이 '비구니 교육자'로서 '현대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상황'을 넘어서는 결연한 선택의 결과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행복한 성공 '진정한 자기' 로의 회귀



**선을 통한 인생 경영**  
최우환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4천원

이 책은 저자(최우환 공플란트치과 대표원장)가 2009년 9월 펴낸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성공인생 마음공부)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작이 저자 개인의 삶에 비취본 자아 성취의 과정을 에세이식으로 쓴 책이라면, 이 책은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선(禪)을 응용해서 풀어본 불교적 자기계발서라 할 수 있다. 전작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저자가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짚짚한 좌선한 힘을 바탕으로 바쁜 치과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나름의 노하우를 선(禪)의 관점에서 풀어내 보인 책이다.

저자는 18년 전, 계룡산 신원사 주련에 새겨 있던 '삼일수심천재보(三一修心千載寶: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 보배지만),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 백년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다)'이라는 글귀를 보고 발심한 후 매일 금강경 독송과 좌선, 보살행으로 마음공부를 해 왔다. 생활 속의 참선(參禪)을 통해 얻은 힘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던 그는 보살행을 적극 실천해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현행을 생활화해 왔다.

조계사, 종로구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의료지원협약을 맺고 무의탁독거노인 틀니시술을 해주는가 하면, 종로구 노인소녀가장 14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를 관리해주시고 약정하는 등 환자를 부처님으로 보며 비움과 나눔, 소통을 실천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두 수레바퀴로 한 오랜 불교공부와 인생공부의 경험이 고스란히 응축된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개인적인 수행체험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 및 선어록, 다양한 경제·경영·성공학 서적과 자기계발서 등을 인용하며 현대인의 참다운 행복을 논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잔잔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을 엮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와 행복, 깨달음을 빼앗아간 사람은 없다. 본래부터 자유와 행복, 깨달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전도된 망상에 빠

져 늘 새로운 것,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갈애(渴愛)를 그치지 못하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다운 자기계발이란 '진정한 자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기가 본래 잃었던 일, 자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성공학 도서들과 자기계발서들이 성공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 의미있는 삶, 함께 누리는 평화, 자아 성취 등 참된 가치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와 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돈과 명예, 쾌락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다스려 내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참다운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는 것도 같다.

세간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에 비중을 둘 것이고, 출세간에서는 정신적인 가치의 획득에 비중을 두겠지만, 사람의 행복은

**마음과 경영 응용한 자기계발서 치과의사로서 비움과 나눔 실천 불교명상, 인연 의해 형성된 산물 진언 등 암송하면 자기 변화 느껴**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바로 인식(三界唯識)이라는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자아 완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기에, 저자는 이 관점에 주목하여 자아 실현을 통한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는 길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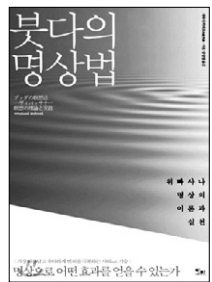
저자의 경우,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좌선을 하고 있지만, 일상에 바빠 참선이나 독경,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하기 힘든 현대인들은 틈틈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염불이나 '옴마니반메훔' 등의 진언(다라니)을 외우다 보면 서서히 변화되는 자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텅 비워져 자비광명으로 채워지면 나를 둘러싼 사람과 일이 저절로 내게 행복을 선사하게 된다는 사실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수행의 과보이다.

그러나, 행복은 꼭 오랜 노력을 기울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여실히 바라보면서(如實知見)' 감사하게 사는 마음에 있다.

김주일 기자

# 명상은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붓다의 명상법**  
지하시 하에오 지음 | 남상영 옮김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3천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위빠사나 명상이다.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사피'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물이 인식되기까지를 12처 구조로 설명하는데, 그 일련의 흐름에 따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일일이 명확한 언어로 붙여 확인하는 것을 '사피'라고 한다. 그것을 통한 선명한 알아차림은 당연히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최소한 우리

가 산더미 같은 망상과 대중처럼 불어오는 잡념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사피만 잘 익힌다고 위빠사나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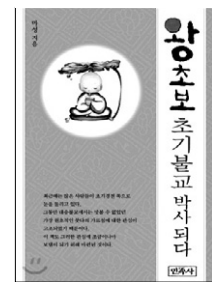
올바른 판단의 행동 근거로 붓다가 제시한 것이 바로 오계를 지키는 불교적 가치관이다. 위빠사나 명상과 불교의 윤리적 기준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명상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만큼 이 책은 철저히 독자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쓰였다. 저자가 오랫동안 해 온 수행과 자신이 지도했던 많은 사람들 통해 일상생활에서 명상의 효과는 무엇인지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구체적 순서와 방법, 궁극적 목표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김주일 기자

# 초심자 알기쉽게 풀은 '초기불교'

**양초보 초기불교박사되다**  
마성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원



이 책은 기존의 아함경 해설서의 분류 방식에 따라 크게 붓다와 담마, 상가로 구분해 초기불교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붓다의 생애와

붓다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룬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대승불교 문화권이었다. 특히나 한국에서 초기불교는 '소승'이라는 이름으로 폄하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불교계에는 초기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조계종 최초로 초기

불교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했다.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초기불교는 근기가 낮은 하근기의 사람을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졌다. 초기불교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불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초기 불교에 입문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입문서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주로 학술적 접근의 난해한 연구서와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집중 탐구한 서적이 많기 때문이다.

도대체 초기불교가 무엇인지, 초기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에 전문적으로 팔리어를 공부하고 현재 팔리문헌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 중인 마성스님이 쉽게 초기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입문서가 바로 이 책이다.

김주일 기자

##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교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락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게, 향화계, 오공양, 음남, 기정어, 법고  
□ 사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장사

문의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